

# 한국 어머니의 육아태도에 관한 연구

## 조 대 경

### 序 論

一世紀에 가까운 科學으로서의 兒童心理學의 歷史는 西歐文化에서 相異한 年齡段階에 따르는 心理的變化和 行動의 變化에 관한 記述 및 規準의 研究로 하여금 거의 集大成된 印象을 모하게 꿈① 하여 놓았으며 이제 그 研究의 焦點을 年齡에 따르는 行動變化 밑에 숨은 過程의 說明에 옮기고 있다.②

이와같은 發達에도 不拘하고 兒童心理學에 從事하는 研究者들은 實驗的接近이 可能한 下等動物의 發達에 관한 研究나 이에 對한 知識에 比하여 兒童에 관한 知識이 貧弱하다고 主張한다.③

兒童에 관한 연구는 成人에 관한 문제들에 가리워 等閑히 되기 쉬운편 아니라 特히 幼兒는 意思表示를 言語化하지 못한다는 事實에 依해서 몇해에 걸친 長期觀察을 要하는 까닭에 이 分野가 가지는 意義에 比하여

研究의 接近이 소홀이 되기 쉽다.

그러나 “Child is father of man”이라는 表現도 있듯이 成人의 前身은 兒童임에 틀림이 없어 個人을 하나의 歷史的存在로 볼 때 한 個人에 關한 理解는 그 個人의 過去에 關한 情報를 必然的으로 要求한다.

이는 우리의 理解에 우리 兒童期에 關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韓國兒童에 關한 研究는 前述의 外國의 경우에 比하여 相當한 貧弱性을 띠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貧弱性은 兒童의 等閑視를 反映한다고도 하겠다.

우리 文化에서의 兒童에 對한 一部 成人의 無關心 乃至 兒童의 자라는 環境에 對한 等閑視는 李箱의 倦怠를④ 想起시킨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本研究는 過去에 있었던 兒童의 發達에 關한 研究들⑤ 과는 달리 어머니의 育兒態度

本研究는 1969年度 文敎部 學術연구조성비에 依하여 遂行된 것임.

- (1) 김성태, 「한국유아의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논집, 1967. 175p.
- (2) Paul H. Musse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Prentice-Hall, Inc. 1963. 2p.
- (3) W.R. Thompson & R. Melzack, “Early Environment in contemporary readings in Psychology”, Houghton Mifflin Co. 1959. 148p.
- (4) 李 箱, 「倦怠」, 李箱全集 第三卷. 高大文學會. 1959. 248p
- (5) 金仁達, 「韓國人 體位에 關한 연구」, 서울大學校 科學 논문집, 第3卷 1956.  
梁在模, 高克勳, 林宜善, 「韓國人 初生兒의 計測」, 「小兒科」, 第一卷 第三號, 1958.  
白南振, 「한국인 小兒 身體發育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 協會誌」 第4卷 第2號 1961  
李善熙, 「兒童의 生活能力檢査의 標準化」 1954. 梨大碩士學位논문  
全明雨, 「幼兒의 質問과 그에 關한 分析」 1957. 梨大碩士學位논문  
安賢華, 「韓國幼兒의 社會化에 대한 조사 연구」 1960. 梨大碩士學位논문  
黃應淵, 「한국 아동의 놀이에 관한 실태 조사」, 中央교육연구소 「조사연구」 第12집, 1962  
禹榮根, 「우리나라 乳幼兒의 정신 발달에 관한 연구」, 「全南大學校論文集」 第7집, 1962  
金聖泰, 「韓國幼兒의 行動發達에 關한 연구」 「고려대학교 논문집」, 第8집 1967  
鄭房子, 「한국 아동의 내재적 사고발달에 관한 일연구」 高大 석사學位논문, 1967  
趙愛道, 「兒童의 分類概念發達에 關한 實驗的 研究」 梨大碩士學位논문, 1969

를 對象으로 해서 附錄의 內容과 같은 質問을 어머니에게 함으로서 韓國 兒童의 發達과 韓國人性格形成에 關한 基礎資料를 마련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따라서 研究의 結果가 示唆하는 可能的 解釋들은 次後의 實驗的 研究에 맡기고 資料의 提示에 끝나는 記述的 調查의 性質을 지닌다.

또 한가지 附言할 것은 外國의 資料에 立脚한 研究가 아닌 까닭에 結果의 他文化圈의 研究結果와의 比較가 不可能했다는 點이다.

이點 역시 우리 的 資料를 마련한다는 見地에서 不可避한 結果였다.

## II. 調查方法

### 1. 質問紙作成

兒童發達에 關한 文獻研究의 結果, 育兒에 關한 部分은 比較的 그 比重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發見했다.

그 理由의 하나로서 前述한 바와같이 兒童의 發達에 關한 研究가 長期의 觀察을 要할뿐 아니라 人性形成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數 많은 要因들의 因果關係를 뚜렷이 하기 어렵고 또한 어머니의 큰 關心事인 育兒라는 現象이 價値의 附與를 要求하는 까닭이라 짐작된다.

研究의 目的에 附合해서 質問紙의 內容은 性格形成에 影響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口唇, 肛門, 性慾, 依存, 攻擊等 五個의 兒童의 行動體制에 關聯된 問項과 育兒行爲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態度, 兄弟間의 競爭, 어린이의 訓練, 어린이의 놀이, 어린이의 社會化에 對한 어머니의 態度等, 人性의 發達에 影響을 준다고 생각되는 分野에 걸쳐 自由回答, 強制選擇型의 問項 44個로 構成되었으며 調查者가 面接을 하고 어머니가 直接記入하는 方式을 擇했다.

調查는 1969年 11月부터 1970年 1月末까지의 3個月에 걸쳐 實施했으며 어머니의

年齡, 教育程度, 家庭의 月平均收入, 男便의 職業, 子女의 數, 子女의 年齡等을 記入케 하였으나 家庭의 月平均收入은 經濟的인 環境이 育兒行動에 미치는 影響이 棼에도 不拘하고 資料의 處理過程에서 除外되었다.

그 理由는 調查者가 直接 觀察한 生活의 環境과 記入한 月平均收入間에 距離가 있어 記入內容이 信賴性이 없는데 있다.

어머니의 教育水準은 國民學校卒業水準以上으로 하였다.

### 2. 調查標集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與件에 따라 反復을 많히 써서 標集을 補強하고⑥ 있는 것이 標集方法의 實情이다.

本研究도 許諾되는 便利한 標集에 依存하는 慣例에 따라 서울, 釜山, 大田, 光州, 原州의 五個地域을 對象으로 하고 이 五個地域에서 各其市內에서 버스로 한時間 距離에 있는 農村을 對象으로해서 都市와 農村어머니의 育兒態度的 比較도 計劃했었으나 農村어머니의 反應이 如意치 않았고 또한 原州地域의 調查結果가 本研究의 報告書作成을 爲한 資料處理期間보다 뒤늦게 到着해서 結果에서 除外되었다.

따라서 本研究에 包含된 對象은 서울, 釜山, 大田, 光州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거나 키운일이있는 어머니 1,132名이며 上記地域別로는 各其. 724名, 153名, 133名, 122名으로 分布되어 있다.

이들의 年齡은 30歲以下가 88名, 31-35歲가 115名, 36-40歲가 317名, 41-45歲가 221名, 46歲以上이 308名, 年齡無記가 83名이며 教育정도는 國卒이 189名, 中高卒이 579名 大卒이 259名, 無記가 105名으로 分布되어 있다.

可能的 範圍內에서 無選標集의 性質을 띄게 하기 爲하여 各地域의 上, 中, 下의 社會經濟的 位置에 있는 住居地들에서 標集의

(6) 김성태. 전계서. 180p

三分之一씩을 抽出토록 했다.

### 3. 調査者

調査者は 10 名の 心理學 또는 教育學을 專攻한 學生들로서 學皆가 이와같은 調査의 經驗이 있는 學生들이 었으며 實施에 앞서 調査에 必要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 Ⅱ. 結 果

(1) 子女의 性別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子女의 出生에 있어 願하는 性에 대한 어머니의 反應은 다음과 같다.

<수표 1> 願하는 性에 對한 頻度分布

願하는性 \ 年 齡	30 以下		31~35		36~40		41~45		46 以上	
	아	52	59.1%	83	72.1%	209	65.8%	139	62.9%	200
딸	12	13.6	5	4.4	17	5.4	13	5.8	14	4.5
아무래도 좋다	24	27.3	27	23.5	87	27.5	68	30.8	92	29.9
無 應 答	—	—	—	—	4	1.3	1	0.5	2	0.7
計	88	100	115	100	317	100	221	100	308	100

위의 分布는 서울, 釜山, 大田, 光州의 四個地域에서, 또한 都市와 農村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教育水準에 關係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어머니의 教育程度가 大卒以上인 경우에 아들을 願하는 百分率이 國

民學校나 中高校의 程度의 67%에 比하여 54.8%를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男兒만을 出産한 어머니와 女兒만을 出産한 어머니의 反應은 다음과 같다.

男兒만 있어도 아들을 願하는 傾向이 減

<수표 2> 男兒 또는 女兒만 있는 경우의 願하는 性에 對한 頻度分布

어머니區分 \ 願하는性	男兒만 있는 경우		女兒만 있는 경우		男女兒 共히 있는 경우	
	아	64	60.4%	70	68.0%	595
딸	14	13.2%	5	4.9%	48	5.2%
아무래도 좋다	28	25.4%	27	26.1%	273	29.6%
無 應 答	—	—	1	1%	7	0.7%
計	106	100	103	100	923	100

少하지 않는 結果의 理由와 함께 아들을 딸보다 압도적으로 더 願하는 理由에 대한 研究는 우리 自身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라는 意味에서 興味를 끈다.

또한 願하는 아들보다 願치 않는 딸을 出産한 경우의 可能할 수 있는 어머니의 否의인 態度가 Erikson 이 뜻하는 *Basic trust*⑦에

미칠수 있는 影響 및 이것이 女性의 性格形成에 淸수있는 結果에 關한 考察도 뜻이 있겠다 하겠다.

否의인 態度의 可能性은 어머니로서 이의 認定을 拒否 乃至 否認하겠으나 願하는 性에 反對되는 性을 出産한 경우 이러한 경험을 가진 어머니의 過半數가 매우 設設했거

(7)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W.W. Norton & Co. Inc. 1963, 247p

나 섭섭했다고 反應함으로써 이 感情을 育兒 行爲에 反映하거나 子女에게 傳播한 可能性을 보여준다.

(2) 育兒에 관한 關心

育兒에 대한 關心을 育兒法에 關한 書籍을 읽은 經驗을 通하여 알아보았다.

五個의 年齡段階를 通하여 1,132 名의 反

應을 한 어머니中の 26.1%가 이러한 冊을 읽은 일이 없으며 58.7%가 때때로 읽었고 14.2%가 자주 읽었다고 하였다.

젊은 層일수록 자주 읽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자주 읽었다는 反應이 많다.

都市中心의 標集에서 反應한 數의 四分의

<수표 3>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른 育兒關係書籍의 購讀有無頻度分布

反應內容	國民校卒		中高校卒		大 卒		未 詳	
	數	%	數	%	數	%	數	%
읽 지 않 았 다	105	55.6%	134	23.1%	23	8.9%	33	31.4%
때 때 로 읽 었 다	74	39.2	372	64.2	163	63.0	56	53.3
자 주 읽 었 다	5	2.6	72	12.4	72	27.7	12	11.4
無 應 答	5	2.6	1	0.2	1	0.4	4	3.8
計	189	100	579	99.9	259	100	105	99.9

一程度의 어머니가 育兒에 關한 冊을 읽은 일이 없다는 結果는 讀書의 機會나 刺戟이 적은 農村에서의 實態를 쉽게 짐작하게 한다.

單純히 讀書라는 見地에서 볼때에는 女子 文盲者의 數가 9,240,846 로서 韓國全女子 人口의 90.05% ⑧에 達한 1930年과 比較할때 長足の 改化가 있다고 할수는 있겠으나, 能力의 開發과 같은 問題와 結附시킬때 위와 같은 結果가 育兒에 대한 無關心이나 兒童의 問題에 對한 無知 乃至 等閑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이方面에 對한 어머니의 啓蒙이 要請되는 結果라 하겠다.

(3) 育兒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어린이를 키울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에 있어 1,132 名의 어머니의 41.5%에 該當되는 470 名은 “어른들”을 들고 있으며 다음의 順位가 39.8%인 470 名으로 “나혼자 알아서 키웠다”라는 反應을 하고 있고, 17.8%에 該當되는 202 名은 “친구나 어른들”이라는 反應을 하였다.

거의 半數의 反應한 어머니가 育兒에 있어 어른들의 影響을 많이 받고있다는 結果는 우리의 家族制度가 아직도 夫婦中心의 것이 못되고 있음을 反映함과 同時에 어린이가 同一視한 模型이 鮮明하지 못할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주며 또한 어린이의 價値觀의 形成이 이러한 可能性의 影響을 받을수 있음을 推測케한다.

(4) 母乳를 먹는 期間

文化에 따라 母乳를 주는 期間이 數個月로부터 五, 六年에 이르는 곳이 있으며 授乳나 離乳時의 어머니의 態度가 幼兒의 後의 性格, 態度, 社會的 定位(social orientation) 등에 影響을 미칠수 있다는 事實은 잘 알려져 있는 바다.

아기가 몇살때까지 젖(모유)를 주었읍니까라는 設問에 對한 反應을 어머니의 教育水準의 따라 分類한 結果는 다음 수표와 같다.

어머니가 國民學校卒業의 教育수준을 갖은 경우에는 3年이 最頻值에 該當되며 中高

(8) 金斗憲「朝鮮家族制度研究」조선문화총서 第 12 집, 乙酉文化社, 1948 747p

<수표 4>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르는 授乳期間의 分布

연령	교육수준		中 高 卒		大 卒	
	國	卒				
6 個月 以下	1	0.5%	13	2.2%	19	7.3%
7~9 月	1	0.5	13	2.2	10	3.9
10~12 "	15	7.9	94	16.2	50	19.3
13~15 "	5	2.6	79	13.6	36	13.9
16~18 "	22	11.6	96	16.9	40	15.4
19~21 "	6	3.2	24	4.0	4	1.5
22~24 "	38	20.1	90	15.5	31	12.0
25~30 "	31	16.4	56	9.7	18	6.9
3 年	40	21.2	42	7.3	13	5.0
3 年以上	15	7.9	39	6.7	20	7.7
無 反 應	15	7.9	33	5.7	18	6.9
計	189	99.8%	579	100%	259	99.8%

卒의 경우에는 16~18 個月, 그리고 大卒인 경우에는 10~12 個月이 各其 最頻値로 되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母乳을 주는 期間이 짧다는 結果를 보여준다.

한편 反應한 어머니의 約 7%가 3年 以上 母乳을 준다는 對答을 함으로서 한국의 어머니가 美國의 어머니보다<sup>⑨</sup> 母乳을 長期에 걸쳐 주고 있음을 알게 한다.

(5) 授乳의 習慣

“아기가 보챌때마다 젖을 주었습니까?”라는 問項에 대해서 보채던 아무때나 주었다는 어머니가 1,132 名中에서 532 名으로 47%를 占하고 시간에 따라 주었다는 어머니가 584 名으로서 51.1%를 占하고 있으며 殘餘의 16 名은 無應答이었다.

역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채던 아무때나 주는 率이 減少하고 시간에 따라 주는 率이 增加함을 다음 수표에서 알 수 있다.

<수표 5> 교육수준에 따르는 어머니의 授乳태도

반응내용	교육수준		中 高 卒		大 卒	
	國	卒				
보채면 아무때나 주었다.	106	56.1%	283	48.9%	102	39.3%
시간에 따라 주었다	78	41.3	294	50.7	154	59.5
無 應 答	5	2.6	2	0.4	3	1.2
計	189	100	579	100	259	100

시간을 엄수해서 젖을 주었다는 584 名의 어머니들의 約 65%에 該當하는 數는 年齡

의 差, 교육수준의 差 또는 男便의 職業의 差와 關係없이 하루에 5~6回 授乳하고 있

(9) Paul H.Mussen, 전계서. 63p

으며 殘餘의 어머니는 더 빈번히 주고있다.

(6) 離乳의 方法

프로이드에 依하면 充分한 口唇의인 滿足(oral satisfaction)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幼兒는 그 段階에 固着함으로써 다음의 成熟 段階에 넘어갈수 없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幼兒는 成人이 되었을 때

口唇性性格(oral character)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10).

離乳라는것은 母親의 乳房의 急激한 喪失이나 어머니라는 든든한 存在의 喪失을 뜻해서 안된다(11).

수표 6은 어머니의 年齡段階에 따르는 離乳方法을 나타내고 있다.

<수표 6> 離乳方法의 年齡別 反應者數 및 百分率

反應內容	30 以下		31~35		36~40		41~45		46 以上	
	數	百分率	數	百分率	數	百分率	數	百分率	數	百分率
젖거나 쓴것을받았다	15	17.0%	24	20.9	89	28.1%	65	29.3%	103	33.4%
우유로 바꾸었다	32	36.4	31	27.0	48	15.1	43	19.5	43	14.0
죽으로 바꾸었다	24	27.3	32	27.8	80	25.2	64	29.0	96	31.2
밥을 먹었다	12	13.6	23	20.0	80	25.2	45	20.4	61	19.8
無 應 答	5	5.7	5	4.4	20	6.3	4	1.8	5	1.6
計	88	100	115	100.1	317	99.9	221	100	308	100

大體로 젊은 어머니일수록 젖거나 쓴 것을 바르는 傾向이 減少하고 우유로 바꾸는 率이 增加함을 알수있다.

年齡을 記入하지 않은 83 名의 어머니를 包含한 總 1,132 名의 反應者中의 315 名(27.8%)이 젖거나 쓴것을 받았다고 하는 結果로 보아 離乳가 갑작스럽고 急激이 이루어진 可

能性이 엿보인다.

우리社會에서 比較的 널리 實行되고 있는 이 離乳行爲에 對한 體系的的研究는 우리의 性格形成過程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교육수준에 따르는 離乳方法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分布는 다음과 같다.

<수표 7> 反應者 수 및 百分率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數	百分率	數	百分率	數	百分率
젖거나 쓴것을받았다	62	32.8%	164	28.3%	62	23.9%
우유로 바꾸다	13	6.9	116	20.0	69	26.6
죽으로 바꾸었다	40	21.2	173	29.9	81	31.3
밥을 먹었다	64	33.9	111	19.2	35	13.5
無 應 答	10	5.3	15	2.6	12	4.6
合 計	189	100.1	579	100	259	99.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젖거나 쓴것을 바르는 率이 減少하고 죽이나 牛乳로 바꾸며, 알

을수록 젖거나 쓴것을 바르는 率이 增加하면서 밥을 먹이는 率이 增加하고 있다.

(10) L.J. Stone & J. Church, Childhood & Adolescence, Random House, 1967, 77p

(11) E.H. Erikson. 전제서, 80p

(7)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行爲

이 問題의 目的은 아기의 排泄에 關한 어머니의 關心과 排泄物에 依한 아기의 不快感의 除去의 問題를 알아보기 爲한 것이었다.

應答者의 93%가 오줌을 한번짜면 기저귀를 갈아주었다는 結果로 보아 이方面에 대한 어머니의 關心은 大端히 큰듯 하다.

(8) 기저귀를 着用하는 期間

“기저귀는 아기가 몇살때까지 착용하였습니까”라는 質問에 對한 反應은 다음 수표와 같다.

最頻值를 볼때 젊은 層일수록 기저귀의 着用期間이 短縮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結果가 젊은 層에 屬하는 어머니 일수

<수표 8> 기저귀의 着用期間分布

어머니 年令 着用期間	30 才以下		31~35才		36~40才		41~45才		46 才以上	
	個 月 以 上									
7~9 개 월	3	3.4%	6	5.2%	2	0.6%	11	5.0%	5	1.6%
10~12 "	20	22.7	25	21.7	61	19.2	41	18.6	54	17.5
13~15 "	11	12.5	15	13.0	33	10.4	24	10.9	19	6.2
16~18 "	20	22.7	19	16.5	51	16.1	27	12.2	34	11.0
18~21 "	4	4.6	7	6.1	9	2.8	9	4.1	9	2.9
22~24 "	8	9.0	17	14.8	61	19.2	45	20.4	62	20.1
그 以 上	15	17.1	19	16.5	69	21.8	50	22.6	98	31.8
無 反 應	7	8.0	7	6.1	31	9.8	14	6.3	27	8.8
計	83	100	115	99.9	317	99.9	221	100.1	308	99.9

록 便訓練이나 便器使用을 일찍이 시작함을 뜻하는 것인지는 分明치 않으나 그럴 可能性은 있다고 보겠다.

(9) 기저귀를 便後의 대소변의 失手

기저귀를 便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경우의 어머니의 反應은 1,132 名의 어머니

중의 10.7%인 121 名이 “때려 주었다”고 하고 60.4%인 684 名이 “꾸짖었다”이며 22.9%인 259 名이 “아무렇게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르는 反應의 分類는 다음 表와 같다.

<수표 9>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경우의 教育수준별로 본 어머니의 反應

教育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때려주었다	32	169%	60	10.4%	21	8.1%
꾸짖었다	101	53.4	353	61.0	168	64.9
아무렇게도 하지 않았다	47	24.9	128	22.1	57	22.0
無 應 答	9	4.6	38	6.6	13	5.0
計	189	99.8	579	100.1	259	100

기저귀를 댄 후에 大小便을 失手하는 경우에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身體的인 處罰 대신에 言語에 依한 叱責을 하고, 알을수록 이와 反對의 態度를 어머니가 가지는 傾向이 있다.

(10) 아기를 안아주는 行爲

幼兒를 안고 있을때의 안고있는 사람이 情緒的 問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問題가 觸感的인 接觸을 通하여 育兒에게 傳해질 수 있다 ⑫는 事實은 Harlow의 實驗과 함께 母子間의 身體的接觸의 重要性을 強調한다.

敎育수준을 記入하지 않았던 105 名의 어

머니를 包含한 1,132 名의 어머니中의 14.5 %에 該當되는 164 名은 언제 아기를 안아 주었습니까라는 質問에 “젖을 먹일때만 안아 주었다”고 反應하였고 25.4%인 288 名은 “젖먹이고, 재울때도 안아주었다”고 하며 58.4%인 661 名은 “그외에도 안고 놀아 주었다.”라고 反應하였다.

어머니의 敎育수준에 따라 國卒인 경우에는 大卒에 있어서보다 젖을 먹일때만 안아 주는 傾向이 짙으며 안아주고 놀아주는 率이 적음을 다음 표에서 알수 있다.

<수표 10> 어머니의 敎育수준別로 본 아기를 안아주는 行爲

敎育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젖을 먹일때만 안아 주었다.	34	18.0%	86	14.9%	30	11.6%
젖먹이고, 재울때도 안아 주었다.	51	27.0	151	26.1	60	23.2
그외에도 안아주고 놀아주었다	102	54.0	335	57.9	162	62.6
無 應 答	2	1.1	7	1.2	7	2.7
計	189	100.1	579	100.1	259	100.1

<수표 11> 어린이의 成長이 맡겨지는 사람

어른들 손에서	203	17.9%
부모손에서	877	77.5
식모손에서	44	3.9
無反應	8	0.7
合 計	1,132	100

(11) 어린이들은 주로 누구손에서 많이 자라는가?

1,132 名의 어머니中에서에 17.9% 該當되는 203 名이 自身の 子女들이 主로 祖父母손에서 키워진다고 反應하였다.

역시 大家族制度의 一面을 나타내는 것이라 짐작된다.

한편 敎育수준에 따르는 差異는 수표 12

<수표 12> 어머니의 敎育수준別로 본 어린이 成長의 환경

敎育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어른들손에서	48	25.4%	102	17.6%	42	16.2%
부모손에서	135	71.4	460	79.4	195	75.3
식모손에서	2	1.1	16	2.8	20	7.7
無 反 應	4	2.2	1	0.2	2	0.8
合 計	189	100.1	579	100	259	100

(12) Frank, L.K., "Tactile Communicatio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1957, 56, 226-227p

와 같아서 水準이 높을수록 어른들 손에서 子女가 키워지는 率이 減少하는 한편, 식모 손에서 키워지는 率이 增加하고 있다.

(12) 아기가 귀찮을 때가 있는지의 여부.

“아기가 귀찮을 때가 있었습니까”라는 設問에 對해서 大體로 反應한 1,132名의 어머니의 四分之三 程度에 該當되는수가 때때로 또는 몹시 귀찮을때가 있었다고 反應하였다.

적지 않은 數의 어머니가 이와같은 反應을 보인것으로 보아 귀찮아 할때의 原因이나 理由와 함께 이때에 어머니가 아기에게 取하

는 行動과 이에 對한 아기의 反應은 母子間의 關係가 人間關係의 基礎라는 見地에서 究明해 볼만하다.

수표 <13>은 교육수준에 따른 反應의 分布인데 國卒의 水準에서 몹시 귀찮았을때가 많은것은 家族計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오는 “願치 않았던 아기”(unwanted child)가 理由를 이루고 있는것인지 또는 經濟的 原因이 理由인지 역시 健全하고 明朗한 人間을 形成한다는 目的에서 밝혀져야 하리라 본다.

<수표 1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귀찮을 때의 여부

교육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때때로 있었다	114	60.3%	413	71.3%	164	63.3%	
전혀 없었다	48	25.4	137	23.7	77	29.7	
몹시귀찮을때가있다	26	13.8	25	4.3	14	5.4	
無 反 應	1	0.5	4	0.7	4	1.5	
計	189	100	579	100	259	99.9	

(13) 목욕의 회수

“목욕은 평균 몇일에 한번 시켰습니까”라는 質問에 對한 反應은 다음 表와 같다.

清潔이나 衛生觀念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差를 엿볼수 있다.

(14) 자는 아기 얼굴에 파리가 앉은 경우에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

어머니의 衛生觀念과 더불어 아기의 平穩 狀態에 대한 障礙物의 除去에 對한 反應을 보기 爲하여 자는 아기 얼굴에 파리가 앉으

<수표 14> 沐浴의 回數

교육수준 목욕回수	國	卒	中	高	卒	大	卒
매 일	60	31.8%	213	36.8%	108	41.7%	
2~3 일	73	38.6	257	44.4	101	39.0	
4~5 "	28	14.8	33	5.7	11	4.2	
6~7 "	15	7.9	46	7.9	27	10.4	
8~9 "	—	—	2	0.3	—	—	
10 일	4	3.1	7	1.2	2	0.8	
그 以 上	2	1.1	5	0.9	1	0.4	
無 反 應	7	3.7	16	2.8	9	3.5	
計	189	100	579	100	259	100	

면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쫓아 주었다”가 國卒어머니의 67.2%, 中高卒어머니의 79.4%, 그리고 大卒어머니의 79.2%의 反應이었고 수진같은 것으로 가려 주었다가 같은 교육수준의 순서로 28.6% 18.3%, 17.0%였다.

쫓아 준다는 反應이 大卒어머니에서 가장 頻繁하였고 수진같은것으로 가려주었다는 反應은 國卒어머니에서 가장 자주 나왔다.

(15) 아기가 병에 걸린 경우의 반응.

아기가 병에 걸린 경우의 어머니의 反應分布는 다음 표와 같다.

<수표 15> 아기가 병들었을 때의 어머니의 反應.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인원	百分率	인원	百分率	인원	百分率
곧 병원에 갔다	55	29.1%	271	46.8%	151	58.3%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었다	38	20.1	65	11.2	13	5.0
경과를 보아 행동했다	72	38.1	229	39.6	88	34.0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었다.	23	12.2	10	1.7	6	2.3
無 反 應	1	0.5	4	0.7	1	0.4
計	189	100	579	100	259	100

곧 병원에 가는 어머니는 大卒에서 가장 率이 많고 경과를 보아 행동하는 現象은 中高卒의 어머니에서, 그리고 약방에 가서 약을 사먹이는 行動과 급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는 行動은 國卒의 어머니에서 가장 率이 크다.

劇的狀況에서 性格特性이 잘 나타난다는 一般的事實로 미루어 어머니에게는 劇的狀況일 子女의 罹病에 對한 어머니의 態度가

子女에 對한 어머니의 態度나 關心을 反映할 것이라는 點은 쉽게 推測할수 있다.

수표(16)은 地域別로 본 이런 경우의 어머니의 反應의 分布 및 百分率이다.

“곧 병원에 갔다”라는 反應을 가장 많이 보인것은 서울地域의 어머니고, “약방에 가서 약을 샀다”는 大田地域, “경과를 보아 行動, 하였다는 反應은 釜山地域 그리고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었다 라는 反應은 光

<수표 61> 地域別로 본 아기가 병들었을 때의 어머니의 反應

反應內容	서 爾		釜 山		大 田		光 州	
	인원	百分率	인원	百分率	인원	百分率	인원	百分率
곧 병원에 갔다.	369	51.0%	67	43.8%	50	37.6%	44	36.1%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었다.	70	9.7	11	7.2	33	24.8	23	18.9
경과를 보아 행동했다.	264	36.5	67	43.8	41	30.8	39	32.0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었다.	16	2.2	6	3.9	7	5.3	15	12.3
無 反 應	5	0.7	2	1.3	2	1.5	1	0.8
計	724	100.1	153	100	133	100	122	100.1

州地域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보였다.

(16) 子女의 偏愛

父母가 子女의 一部를 偏愛할 때 父母의 關心을 더 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사

이에 갈등이 일어날수 있음은 勿論이러니와 後者와 父母사이의 健全한 關係도 障礙를 받는다는 事實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應答한 1,132 名의 어머니의 거의 半數가 아들이나 딸을 偏愛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당신은 자녀중에 더 귀여워한 어린이가 있었습니까”라는 質問에 對해서 1,132 名中

의 28.9%에 該當되는 327 名의 어머니가 “아들을 더 귀여워했다”고 反應했으며 16.0%인 181 名이 “딸을 더 귀여워했다”고 表現했고 “없었다”가 49.0%에 該當되는 555 名이었으며 無反應이 6.1%인 69 名이었다.

수표 <17>과 <18>은 各其 地域別과 教育수준別의 어머니의 이 質問에 對한 反應分布를 表示하고 있다.

<수표 17> 地域別로 본 偏愛의 傾向

地域別 反應內容	서 울	釜 山	大 田	光 州
아들을 더 귀여워했다.	202 27.9%	62 40.5%	26 19.6%	37 30.3%
딸을 더 귀여워했다.	119 16.4	36 3.5	9 6.8	17 13.9
없었다.	358 49.4	54 35.3	84 63.2	59 48.4
無 反 應	45 6.2	1 0.7	14 10.5	9 7.4
合 計	724 99.9	153 100	122 100.1	122 100

<수표 18> 어머니의 教育수준別로 본 偏愛의 傾向

教育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아들을 더 귀여워했다	68 36.04%	167 28.8%	64 24.7%
딸을 더 귀여워했다	21 11.1	100 17.3	39 5.1
없었다	88 46.6	283 48.9	136 52.5
無 反 應	12 6.3	29 5.0	20 7.7
合 計	189 100	579 100	259 100

수표 <18>은 偏愛의 傾向이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減少함을 보여주고 아들을 더 귀여워하는 現象이 教育수준이 낮을수록 뚜렷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표 <17>의 結果는 釜山地域의 어머니가 其他地域의 어머니보다 男兒를 더 귀여워하고 偏愛의 傾向을 強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아들을 더 귀여워 했다고 反應한 327 名의 어머니中의 58.11%에 該當되는 190 名이 첫째아들을, 18.4%인 59 名이 둘째아들을, 11.5%인 38 名이 셋째아들을, 4.9%인 16 名

이 넷째아들을, 그리고 4%인 13 名이 다섯째 아들을 더 귀여워 했다는 結果로 보아 出生順位에 따라 어머니의 子女에 대한 關心이 漸次 減少하는듯 하다.

類似한 結果가 181 名의 딸을 더 귀여워했다는 어머니에게서도 發見되었다.

(17) 子女에 對한 아버지의 偏愛

“마깁어른께서도 더 귀여워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까”라는 質問에 對한 어머니의 反應을 알아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더 귀여워 했다는 260 名의 어머니의 意見에 依하면 其中的 53.1%에 該當되는 138 名이 첫째아

들을, 23.5%인 61 명이 둘째아들을, 16.9%인 44 명이 셋째아들을, 5%인 13 명이 넷째아들을, 그리고 1.5%에 該當되는 4 명이 다섯째 아들을 더 귀여워 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딸을 더 귀여워 했다는 258 명의 어머니의 意見도 類似하게 出生順位에 따라 百分率이 減少하고 있다.

興味있는것은 아들을 더 귀여워 했다는 어머니가 327 명인데 比해서 아버지는 260 명이며, 딸을 더 귀여워 했다는 어머니가 181 명인데 比해서 아버지는 281 명이라는 結果이다.

異性の 子女를 偏愛하는 傾向을 엿볼수 있다.

(18) 子女는 父母中의 누구를 더 따르는가.

“댁의 자녀는 부모중의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라는 물음에 答한 917 명의 어머니 中에서 子女가 아들인 경우 “아버지”라는 反應이 26.6%인 336 명이고 “어머니”가 60.9%인 558 명, 그리고 “부모외의 사람”이 2.5%인 23 명이였다.

子女가 딸인 경우에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고 反應한 어머니는 893 名中에서 42.3%에 該當되는 378 명이였고 어머니를 딸이 더 좋아한다는 反應은 55.6%인 496 명, 그러

고 부모의 사람을 더 좋아 한다는 答이 2.1%인 19 명이였다.

子女의 性別에 關係없이 모두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結果이나 이곳에서도 역시 아들이 어머니를 더 따르고 딸이 아버지를 더 따르는 現象을 본다.

子女에게 미치는 影響力이라는 點에서 어머니라는 位置의 重要性을 알려주는 結果라 하겠다.

(19)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이 부모중의 누구를 닮았는가

子女가 아들인 경우 979 명의 反應한 어머니의 70.3%인 688 명이 아들의 성격이나 행동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答하였고 26.9%인 263 명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反應하였다.

2.9%에 該當되는 殘餘의 28 名은 아들이 다른 사람을 닮았다고 했다.

反面 딸이 누구를 닮았느냐는 質問에 대해서 909 명의 어머니는 41%에 該當되는 373 명이 아버지를, 그리고 53.9%에 該當되는 490 명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닮는것보다 딸이 아버지를 닮는 率이 크다는 結果이다.

여기서 興味있는 事實은 딸이 아버지를 닮는 率이 어머니가 젊은 世代에 屬할수록 增加하고 어머니를 닮는 率이 減少해간다는 現

<수표 19> “댁의 딸은 성격이나 행동이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에 對한 反應

年齡別 담은사람	30歲以下		31~35歲		36~40歲		41~45歲		46歲以上	
	아버지	38	54.3%	35	42.2%	110	45.1%	74	43.8%	87
어머니	29	41.4	45	54.2	121	49.6	92	54.4	169	61.2
다른사람	3	4.3	3	3.6	13	5.3	3	1.8	20	7.2
計	70	100	83	100	254	100	169	100	276	99.9

象이다.

한국가정에서의 男女의 役割의 變化를 示唆하는 結果인지는 次後의 研究가 밝혀야 하겠다.

(20) 어머니가 눈에 띄지 않을 때의 아기의 反應

어머니가 눈에 띄지 않아도 울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꼭 도라온다는 어머니에 대

한 아기의 信賴感이 아기의 마음속에 確立되어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幼兒의 첫 社會的成就是 어머니가 눈에 띄지 않아도 過度한 不安이나 노여움을 갖지 않는 것이다<sup>13)</sup>.

人間關係의 基本이 되는 母子間의 關係와 幼兒의 어머니에 대한 위와 같은 信賴感을 大體로 알아보기 위하여 “댁의 아기는 엄마

가 눈에 띄지 않으면 옵니까”라는 質問을 하였다.

1,132 名의 어머니 中에서 44.3%에 해당되는 501 名이 “온다”라고 答하였고, 52.8%인 598 名이 “안온다”라고 反應했으며 2.9%인 33 名이 無反應이었다.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른 分布는 수표 <20>과 같다.

<수표 20> 어머니의 教育수준 別로 본 어머니가 눈에 띄지 않을 때의 아기의 反應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온 다	84	44.4%	278	48.0%	91	35.1%
안 온 다	99	52.4	291	50.3	153	59.1
無 反 應	6	3.2	10	1.7	15	5.8
計	189	100	579	100	259	100

(21) 어린이의 恐怖反應

댁의 어린이는 무서우면 어떻게 행동 하옵니까”라는 質問에 대한 反應內容과 어머니

의 教育수준에 따른 反應分布는 수표 <21>과 같다.

反應한 內容으로부터는 어린이가 恐怖를 느

<수표 21> 어린이의 恐怖反應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어른 곁으로 달려 든다. 뛰어든다. 배어 달린다	28	18.9%	138	29%	65	34.6%
이불을 뒤집어 쓴다. 얼굴을 가린다. 파묻는다.	14	9.5	51	10.7	21	11.2
늘랜 얼굴로 앉아 있다.	13	8.8	92	19.3	8	4.2
울어댄다 소리를 지른다.	72	48.6	141	29.6	81	43.1
도망간다. 구석에 숨는다.	21	14.2	54	11.3	13	6.9
計	148	100	476	99.9	188	100

낄 때는 주로 어른 곁으로 달려들거나 또는 우는 反應을 한다는 結果이다.

(22) 子女가 애기는 어데서 생겼느냐는 質問을 할 때의 어머니의 反應

“엄마 애기는 어데서 생겼어”라고 子女가

물을 때의 父母들의 反應內容과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른 反應의 分布는 수표 <22>과 같다.

反應한 어머니의 過半數가 事實을 이야기 해주고 있으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13) E.H. Erikson, 전제서 247p

<수표 22> 아기의 出處에 對한 어린이의 물음에 對한 反應

反應內容	교육수준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엄마 배에서, 배꼽에서, 엄마가 낳는다.	53	53.5%	269	61.1%	99	63.8%		
하느님, 하늘, 별나라에서 보내왔다.	17	17.2	47	10.7	20	12.9		
데려왔다, 사왔다(병원, 열집, 시장, 가게에서)	4	4.0	32	7.3	4	2.6		
젖어왔다(길, 강, 다리밑서)	4	4.0	5	1.1	—	—		
애들은 그런것 몰라데 왜	10	10.1	22	5.0	3	1.9		
얼버므려서 答을 回避한다.	7	7.1	16	3.6	6	3.9		
그건 차차 알게 된다.	3	3.0	43	7.8	18	11.6		
엄마 아빠가 사랑하던 낳는다.	1	1.0	6	1.4	5	3.2		
計	99	99.9	440	100	155	99.9		

傾向이 強하고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合理的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2) 어린이의 노리

어린이가 주로 무슨 놀이를 즐기나 알아보기 위하여 “댁의 어린이는 주로 어떤 놀

이를 많이 합니까”라는 質問을 하였다.

反應한 1,118名의 反應內容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地方에 따른 分布는 다음과 같다.

頻度로 보아 男子는 주로 칼싸움, 전쟁노

<수표 23-1> 男兒의 놀이

교육수준및地域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서 울		釜 山		大 田		光 州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國 卒	中 高 卒
칼싸움, 전쟁노리 총노리.	52	35.1%	292	45.9%	100	38.3%	357	46.1%	59	46.8%	34	28.8%	27	27.3%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33	22.3	110	17.3	41	15.8	126	16.3	11	8.7	33	28	24	24.2
자전거, 자동차, 비 행기 오토바이노리	21	14.1	106	16.7	33	12.8	109	14.1	21	16.7	21	17.9	17	17.3
공 노 리	12	8.1	20	3.1	18	7.0	30	3.9	13	10.3	15	12.7	6	6.1
슬레잡기 뽀뽀기	5	3.4	12	1.9	11	4.3	20	2.6	5	4.0	2	1.7	1	1.0
집짓기, 다이아몬 드게임	7	4.7	27	4.2	14	5.5	43	5.5	6	4.8	2	—	2	2.0
인형노리, 소꿉노 리, 학교 병원노리	9	6.1	20	3.1	15	5.8	30	3.9	—	—	2	1.7	12	12.1
그림책 만화책 공 부	4	2.7	17	2.7	9	3.5	22	2.8	4	3.2	2	1.7	3	3.0
기 타	5	3.4	32	5.0	18	7.0	38	4.9	7	5.6	9	7.6	7	7.1
計	148	99.9	636	99.9	259	100	775	100.1	126	100.1	118	99.9	99	100.1

리, 총노리,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을 하고 女兒는 인형노리, 소꿉노리를 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23) 집에 있는 작난감

“댁의 어린이의 장난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는 質問에 대한 反應은 다음 수표와

<수표 23-2> 女兒의 놀이

놀이종류	교육수준및地域								
	國 卒	中高卒	大 卒	서 울	釜 山	大 田	光 州		
칼싸움, 전쟁노리 총노리.	—	—	2 0.3%	1 0.5%	—	—	3 2.9%	—	—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2 1.4%	7 1.1	—	—	9 1.2%	—	—	1 1.2%	—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오토바이노리	—	—	12 1.9	1 0.5	12 1.6	—	—	—	1 1.2%
공 노 리	5 3.5	5 0.8	9 4.2	8 1.0	2 1.9	2 2.3	8 9.8		
술레잡기, 뽀뿌기	25 17.3	62 10.1	20 9.4	63 8.2	12 11.4	28 32.6	15 18.3		
집짓기. 다이아몬드 드게임	2 1.4	6 1.1	3 1.4	11 1.4	—	—	—	—	—
인형노리, 소꿉노리, 학교, 병원노리	106 73.6	486 78.9	163 78.9	630 81.7	80 76.2	51 59.2	52 63.4		
그림책, 만화책 工夫	4 2.8	23 4.5	9 4.2	34 4.4	5 4.8	1 1.2	5 6.1		
기 타	—	—	8 1.3	2 0.9	4 0.5	3 2.9	3 3.5	1 1.2	
計	144	100 616	100 213	100 771	100 105	100.1	86 100	82 100	

<수표 24> 宅에 있는 장난감

장난감종류	子女의性別	
	男	女
총, 칼,	650 35.1%	4 0.3%
딱지, 구슬, 팽이	105 5.7	6 0.4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배, 기차, 비행기	845 45.6	63 4.2
전화, 시계	4 0.3	7 0.5
공	100 5.4	53 3.5
줄넘기, 고무줄	4 0.3	36 2.3
집짓기, 다이아몬드 바둑	77 4.2	43 2.8
인형, 소꿉	18 1.0	1243 82.0
만화, 그림책,	38 2.0	50 3.3
기 타	13 0.5	11 0.7
計	1,854 100	1,516 100

같다.

장난감의 種類는 大體로 김성태의 연구결과와 一致하고 있다.

兒童의 問題가 成人의 問題에 依하여 가리워지듯 玩具工業도 其他의 物質의 慾求가

(14) 김성태, 전제서, 224pp

充足된 곳에서 發達함이 例인데 男兒의 경우에 있어 粗雜한 攻撃性 玩具가 普及되어 있는것도 생각할 問題이며 教育玩具의 普及이 어렵다.

(24) 父母가 어린이하고 같이 놀아 주는 시간

“어린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갖읍니까”라는 說問에 對한 어머니의 反應은 수표 <25>와 같다.

<수표 25>

反應內容	父 母		아 버 지		어 머 니	
	反 應	百 分 比	反 應	百 分 比	反 應	百 分 比
갖는다	646	57.1%	906	80.0%		
못갖는다	380	33.6	136	12.0		
無反應	106	9.4	90	8.0		
計	1132	100.1	1132	100		

어린이 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은 아버지에게 比해서 어머니가 훨씬 더 갖고 있다.

(25) 어린이와 노는 시간

어린이와 같이 놀아준다면 하루에 몇시간

동안 놀아주는나라는 質問에 對한 反應은 수

<수표 26>

反應內容	父 母 別	
	아 버 지	어 머 니
30 分 정도	113 17.5%	50 5.6%
1 시간 정도	188 29.1	103 11.5
1 시간 30分 정도	71 11.0	41 4.6
2 시간 정도	143 22.1	115 12.8
2 시간 30 分 정도	42 6.5	41 4.6
3 시간 정도	58 9.0	118 13.2
그 以上	31 4.8	427 47.7
計	646 100	895 100

표 <26>와 같다.

아버지는 "1 時間 정도"가 가장 頻繁한 反應  
임에 反해서 어머니는 "3 時間 以上"이라는  
反應이 가장 頻繁한 反應으로 나타났다.

(26) 자녀가 동무들하고 놀다 싸우고 울  
더 들어왔을 때의 어머니의 反應  
자녀가 동무들하고 놀다 싸우고 울더 들  
어 왔을 때의 어머니의 反應을 어머니의 교  
육 수준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수표 <27>과  
같다.

이 結果에 依하면 一般的으로 國卒의 교  
육수준에 있는 어머니가 나쁘래거나, 내버  
려두거나, 또는 때리거나 때린 아이의 父母  
를 찾아 抗議하거나하는 傾向이 強한듯 하다.

<수표 27> 어린이가 동무들하고 싸우고 울며 들어 왔을 때의 어머니의 反應

反應內容	교육수준					
	國	卒	中	高	卒	大
나무란다	44	23.3%	95	16.4%	39	15.1%
타이른다	96	50.8	416	71.8	170	65.6
내버려둔다	16	8.5	10	1.7	13	5.0
그런애와 놀지 못 하게 한다.	13	6.9	32	5.5	15	5.8
때리거나 그 부모 를 찾아 향의 한다	10	5.3	5	0.9	4	1.5
無 反 應	10	5.3	21	3.6	18	6.9
計	189	100.1	579	99.9	259	99.9

<수표 28> 어린이가 잘 못했을 때의 어머니의 行動의 分布

反應內容	교육수준					
	國	卒	中	高	卒	大
때린다	40	21.2%	171	12.2%	41	15.8%
욕을 해준다	16	8.5	23	4.0	4	1.5
타이른다	115	60.8	434	75.0	199	76.8
얼려준다	7	3.7	19	3.3	7	2.7
아무말 하지 않는다	2	1.1	5	0.9	3	1.2
無 反 應	9	4.8	27	4.7	5	1.9
計	189	100.1	579	100.1	259	99.9

(27) 어린이가 잘 못했을 때의 어머니의 行動.

어린이가 잘 못했을 때의 어머니의 反應을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라 알아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수표 <27>의 結果와 비슷하게 이곳에서도 國卒의 教育수준의 어머니가 強한 情緒的反應

應을 하고있는 傾向을 엿볼수 있다,

(28) 꾸짖음을 받는 子女의 行動.

자녀의 어떠한 行動이 가장 꾸지람을 받고 또한 子女의 어떠한 行動을 父母가 주로 꾸짖느냐를 알아 보았다.

結果는 수표 <29>와 같다.

거짓말을 할때에 꾸짖는 현상이 어머니의

<수표 29> 꾸지람을 받는 子女의 行動

教育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卒	大	卒
싸움, 다툼	32	24.1%	54	13.1	32	20.9%
工夫 않하고 놀때, 늦게 다닐때	12	9.0	35	8.5	12	7.8
말을 안들올때, 버릇 없고 심술부릴때.	30	22.6	118	28.6	26	17.0
거짓말 할때	25	18.8	122	29.5	62	40.5
욕 할때	5	3.8	15	3.6	7	4.6
대소변 못가릴때	—	—	7	1.7	5	3.3
나쁜짓, 장난, 위험 한짓 할때	26	19.6	62	15.0	8	5.2
其 他	3	2.2	—	—	1	0.7
計	133	100.1	413	100	153	100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確實하게 增加함을 볼수 있다.

대소변 못가릴 때에도 僅少하나 비슷한 結果를 볼수 있어 興味를 끈다.

(29) 어린이가 착한 일을 했을 때의 칭찬 方法

<수표 30>

反應內容	頻度	
	頻度	百分比
말로 칭찬한다	653	57.7%
좋아하는 것을 사준다	194	17.1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23	2.0
바라는 것을 사준다고 약속한다.	210	18.6
無 反 應	52	4.6
計	1,132	100

어린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어머니가 어떠한 方法으로 칭찬하는지를 알아본 結果는 다음 수표 <30>과 같다.

말로 칭찬하는 方法이 首位를 차지하고 物質에 의한 보수가 次位를 占하고 있다.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의한 分布는 다음 수표와 같다.

國卒의 教育수준을 갖인 어머니가 말로 칭찬한다는 反應이 가장 頻繁하고 좋아하는것을 사주거나 바라는 것을 사주는것과 같은 物質的報酬에 있어 가장 많은 頻度를 보이고 있다.

(30) 어머니가 칭찬하는 子女의 行動

칭찬을 받는 子女의 행동들은 頻度順으로 보아 “工夫를 잘 했을때, 말 잘들올때, 순종할때, 심부름 잘 했을때”, 혼자서 착한 일 했을때, “제가 할 일을 알아서 했을때”, 남

<수표 31> 교육 수준에 따른 보수方法的의 分布

교육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大	卒
말로 칭찬한다	124	65.6%	311	53.7%	158	61.0%
좋아하는것을사준다	18	9.5	115	19.9	40	15.4
아무말도 하지않는다	4	2.2	12	2.1	5	1.9
바라는것을 사준다고 약속한다.	35	18.5	117	20.2	42	16.2
無 反 應	8	4.2	24	4.1	14	5.4
計	189	100	579	100	259	99.9

을 도와 주었을때"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라 그 頻度の 分布狀態로 본다.

頻度로 보아 國卒의 어머니는 공부 잘 했을 때와 순종할때에 가장 칭찬함에 反해서 大卒의 어머니는 역시 工夫 잘 했을때와 혼자

<수표 32> 어머니에 依해서 칭찬받는 어린이의 행동

교육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國	卒	中	高	大	卒
말 잘들올때. 순종할때. 심부름잘할때	32	25.6%	108	26.5%	18	13.2%
혼자서 착한일했을때	27	21.6	67	16.5	32	23.5
공부 잘 했을때	54	43.2	160	39.3	60	44.1
제가 할일을 알아서 했을때	7	5.6	50	12.3	11	8.1
남을테와 주었을 때	5	4.0	22	5.4	15	11.0
計	125	100	407	100	136	99.9

서 착한일을 했을 때 제일 칭찬하는 傾向을 볼수있다.

칭찬이라는 것이 아이의 行動을 助長하는데 적지 않은 役割을 한다는 事實은 위와 같은 어머니의 態度의 差가 아이의 人性發達이나 價値觀의 形成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임을 推測케한다.

(31) 자녀들 과의 약속

자녀들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있어서의 어머니의 태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의한 태도의 분포는 수표 <33-1> <33-2>과 같다.

수표 <33-1>에 依하면 子女와의 約束을 꼭 지킨다는 反應이 1,132名中의 23.0%인 260名에서 나왔을뿐이다.

다른 文化團의 어머니와의 比較가 있었으면 興味있겠다.

<수표 33-1>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는태도

꼭 지킨다	260	23.0%
지키는 편이 많다	445	39.3
지킬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373	33.0
못지킨다.	17	1.5
無反應	37	3.3
計	1,132	100.1

수표 <31-2>에 依하면 子女와의 約束을 꼭 지키는 어머니가 大卒에서 많음을 알수 있다.

<수표 33-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약속 지키는 태도

교육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꼭 지키다	30	15.9%	115	19.9%	90	34.7%
지키는 편이 많다	50	26.5	254	43.9	102	39.4
지킬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때도 있다.	36	45.5	193	33.3	60	23.2
못 지키다.	16	8.5	—	—	—	—
無 反 應	7	3.7	17	2.9	7	2.7
計	189	100.1	579	100	259	100

(32) 어린이의 好奇心을 充足시키는 態度 “댁의 자녀가 “엄마 왜 소는 다리가 넷이야”하고 물었을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라

는 質問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反應分布는 다음과 같다.

“엄마도 모르겠어” 또는 “넷이니까 넷이

<수표 34> 어린이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머니의 태도

교육수준 反應內容	國 卒		中 高 卒		大 卒	
넷이니까 넷이지	20	10.6%	21	3.6%	7	2.7%
넘어지지 말라고	26	13.8	92	15.9	41	15.8
동물은 다리가 넷이야	91	48.1	345	59.6	157	60.6
이바보야그것도몰라	8	4.2	1	0.1	2	0.8
엄마도 모르겠어	18	9.5	30	5.2	14	5.4
기타	12	6.4	22	3.8	13	5.0
無 反 應	14	7.4	68	11.7	25	9.6
計	189	100	579	99.9	259	99.9

지”와 같은 誠意없는 反應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도가 많고 “동물은 다리가 넷이야”와 같은 비교적 合理的인 反應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頻度가 잦음을 볼수있다. 好奇心의 充足과 知能의 開發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볼때 好奇心을 이르게주고 充足까지 시켜주는 다른 文化圈의 어머니와 比較해서 우리나라 어머니의 反應은 無 誠意한듯이 보인다.

(33) 어린이가 꼭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버릇.

꼭 배워야 하겠다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린이의 버릇을 알아보았다.

1,132 명의 어머니中의 458 명만이 이 質問에 對答한것으로 보아 버릇 또는 訓練에 대한 一貫된 意見이 한국의 어머니에게는 없거나 弱한듯 하다.

反應한 內容과 그 頻度の 分布는 수표 <35>와 같다.

수표 <35>의 反應內容을 다시 類似한것에 따라 묶으면 “어른의 존경, 순종, 人事, 禮儀, 道德”이 30.7%로서 그 頻도에 있어 首

<수표 35> 꼭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버릇

反應內容	頻度	百分率
어른의 존경, 순종	53	10.9%
自立, 責任感	88	18.0
正直,	40	8.2
人事, 禮儀, 道德	97	19.8
規則生活, 정돈 청결	87	17.8
忍耐心, 沈着性	50	10.2
고운말쓰기, 욱얹하기	41	8.4
節約, 군것질않하기	9	1.9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기	23	4.7
計	458	99.9

位를 차지함을 알수있다. “節約, 군것질 않하기”는 1.9%에 不過한데 cross-cultural study의 機會가 있으면 一般的으로 浪費성이 크다는 우리 自身の 理解에 도움이 되겠다.

이 反應內容을 다시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라 分類해본 結果는 다음 수표와 같다.

頻도에 依하면 國民學校의 教育수준의 어머니는 人事, 禮儀, 道德을 強調하고 中高校의 수준에서 어른존경, 순종, 正直, 規則生活, 고운말 쓰기를 強調하고 있고 大卒의 教育배경을 갖인 어머니는 自立, 責任感, 忍耐, 沈着等を 特히 強調하고 있다.

(34)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의 버릇.

어머니로 하여금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

<수표 36>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른 어린이가 꼭 배워야 하겠다는 버릇.

반응內容	國		中 高		大	
	卒	卒	卒	卒	卒	卒
어른존경 순종	4	6.4%	39	13.0%	8	8.4%
自立. 責任感	16	25.8	39	13.0	26	27.4
正直	2	3.2	32	10.6	4	4.2
人事 禮儀 도덕	14	22.6	55	18.3	20	21.1
規則生活 정돈 청결	8	12.9	60	19.9	15	15.8
참율성 인내성 침착성	6	9.7	30	10.0	10	10.5
고운말쓰기 욱얹하기	5	8.1	28	9.3	6	6.3
바른자세	1	1.6	—	—	—	—
절약군것질 않하기	4	6.4	—	—	4	4.2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기	2	3.2	18	6.0	2	2.1
計	62	99.9	301	100.1	95	100

게끔 하는 어린이의 버릇은 어린이의 現今의 問題이기도하며 어린이의 이와같은 버릇들은 成人들의 問題를 反映하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댁의 어린이에게서 고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 하시는 버릇은?”이라는 質問에 대하여 反應한 內容들은 大略 다음의 14 種으로

묶여진다.

百分率의 順位로 볼때 “나쁜말, 욱고자질” “責任感의 不足”, “계으름, 늦잠, 不規則한 生活” 등이 높은 比率를 찾아하고 있다.

(35) 自立性

“댁에 어린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質問에

<수표 37> 어머니가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의 버릇

反應內容	빈도	百分率
청결	4	0.7%
손가락 빠는 버릇	16	2.9
눈섭만지는 버릇	3	0.5
신경질, 심술, 반항	37	6.7
계요름, 늦잠, 不規則한 生活	76	13.8
어리광, 우는 버릇	52	9.5
버릇 없는것.	35	6.4
나쁜 姿勢	12	2.2
依存度	38	6.9
거짓말	12	2.2
나쁜말, 욕,	131	23.8
군것질, 낭비	32	5.8
偏食	19	3.5
責任感不足	83	15.1
計	550	100

대해서는 1,132 명의 어머니中의 73.0%에 該當하는 826 명이 “있다”라고 대답하고 15.8%인 179 명이 “없다”라는 反應을 하였으며 無反應이 11.2%에 該當되는 127 명이였다.

<수표 38> 自立性을 키우는데 사용한 方法의 빈도分布

反應內容	빈도	百分率
혼자학교, 교회, 심부름 보냄	18	2.4%
넘어지면 혼자 이어서게 함	100	13.3
自己일을 스스로하게 함	280	37.2
혼자 식사하게 한다	32	4.3
혼자 옷입게 세수하게 자게 한다	45	6.0
自己방의 이부자리 같은것 혼자 개게 한다.	202	26.8
집안 일을 돕게 한다.	21	2.8
一切 干涉 不한다. 依持 못하게 하기 위하여	45	6.0
집안 청소를 시킨다.	4	0.5
其他	5	0.7
計	752	100

<수표 4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子女의 自立性 育成方法의 分布

反應內容	교육수준					
	國	卒	中	高	卒	大
혼자학교, 교회, 심부름보냄	3	3.6%	10	2.3%	4	2.2%
넘어지면 혼자스게 함	14	16.5	60	13.6	26	14.0
自己일을 스스로하게 함	22	25.7	185	41.9	60	32.3
혼자 식사하게 한다.	1	1.2	20	4.5	10	5.4
혼자 옷 입게 세수하게 자게 한다	16	18.8	9	2.0	14	7.5
自己방의 이부자리 같은것 혼자 개게 한다.	9	10.6	130	29.4	57	30.6
집안일을 돕게 한다.	2	2.4	12	2.7	7	3.8
一切 干涉 不한다 依持 못하게	17	20.0	12	2.7	4	2.2
집안 청소를 시킨다.	—	—	2	0.5	2	1.1
其他	1	1.2	2	0.5	2	1.1
計	85	100	442	100.1	186	100

子女의 독립心을 키우기 爲하여 어머니가 사용한 記入된 方法들은 다음과 같다.

子女의 獨立心을 키우기 爲하여 使用한 方法은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라 若干의 差를 보이고 있다(教育수준 記入者단 分類).

即 國卒의 어머니는 依持못하게 一切干涉 않하고, 혼자 웃입고 세수하고 자계끔 하는데 있어 中高나 大卒의 어머니보다 頻度가 強하고 自己방의 이부자리를 혼자 개계 하는데 있어 中高나 大卒의 어머니보다 그 頻度가 弱함을 알수있다.

#### IV. 考察 및 要約

##### 1. 性別에 對한 態度

딸보다 아들을 願하는 傾向이 壓倒的인 結果는 이러한 社會的 雰圍氣에서 成長한 어머니의 報償的인 所願도 反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 結果는 韓國 女性의 性格形成의 過程이 男子의 그것보다 크게 다른 것임을 示唆하며 따라서 女性의 解放 乃至 男女의 同等이라는 現代의思潮가 眞實한 뜻에서의 男女同等보다는 이러한 環境이 女性에게 준 영향에 對한 女性과 이 영향들과의 相互作用에 더크므로써 女性의 非女性化가 促進되고 있을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解釋도 可能하겠다.

##### 2. 育兒에 對한 關心

育兒에 關한 書籍을 講入해서 읽을 程度의 能動的인 育兒에 對한 關心은 讀書의 傾向이 높은 大卒의 教育水準의 어머니에 있어 자주 읽었다는 反應이 27.7%에 不過함으로서 그 能動性이 疑心된다.

이러한 結果는 祖父母의 影響을 받고 있는 家庭이 적지 않다는 事實에 依해서도 影響을 받은 것이라 볼수 있겠다.

##### 3. 育兒에 있어 어머니에게 影響을 주는 사람들.

41.5%에 該當되는 어머니가 “어른들”을 들고 있는것으로 보아 孫子의 成長에 미치는 祖父母의 影響은 無視할 수 없는듯 하다. 評定尺度같은 것에 依한 影響의 強度測定은 어린이의 同一視의 模型의 祖父母와 父母間에 있어서의 分散과 이에 價値觀形成의 混亂 可能性을 어느程度 밝힐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 4. 授乳

一般的으로 美國의 어머니보다 母乳를 주는 期間이 훨씬 길며 어머니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이 期間이 짧아지고 있다.

授乳에 對한 理論은 많은 變遷을 겪어 왔으나 1년 내지 그전후해서 離乳한 아이들이 가장 情緒的으로 不安定하다고 하는 結果와<sup>(15)</sup> 比較할 때 中高卒의 어머니의 수유기간의 最長치가 16~18個月이며 大卒의 어머니의 그것이 10~12個月이라는 調查結果는 더한층 洗鍊된 調查와 實驗의 必要性을 要求한다.

한편 教育수준에 따라 授乳의 方法도 要求制와 時間制에 있어 差를 보이고 있는데 兩者의 兼用 實施를 하고있는지의 與否도 밝혀져야 할 課題이다.

또한 大卒의 教育수준을 갖인 어머니가 子女의 社會化를 일찍이 시작하고 있는 點은, 子女와 父親間의 競爭의 極大化와 더부러 子女로 하여금 道德的價値의 強한 內面化를 하게끔 하고, 責任과 非難을 쉽게 容認하게 한다는 假說에 對한 實驗的인 比較연구의 可能性을 提示한다.

##### 5. 離乳의 方法

맘거나 쓴것을 발라서 離乳를 하는 方法은 우리 文化圈에서 종종 觀察되는 現象이나 이의 比率이 大卒의 어머니에 있어서도 反應한 사람의 四分之一程度를 占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와 같은 離乳方法이 우리 社會에서 相當히 뿌리깊게 實施되어온 것임을 反

(15) 정양은. 「一般心理學」, 法文社, 第三版, 1967. 84pp

映하여 준다.

性格의 發達에 미칠수 있는 이 離乳方法의 영향에 關한 考察도 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 6. 기저귀에 關한 문제

응답자의 93%가 오줌을 한번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었다고 反應한것으로 보아 어린이의 基本的 慾求의 解決에 있어서 한국의 어머니는 勤勉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기저귀의 着用을 中止한 後에 어린이가 大小便을 가리지 못한 경우의 어머니의 反應에 있어 約 30%에 該當되는 어머니가 “아무렇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反應을 보이거나 無應答이라는 結果와 殘餘의 어머니들의 “때려주었다”거나 “꾸짖었다”는 反應은 우리社會에서의 便訓練이 極端性을 띄고 있는듯한 印象을 준다.

따라서 역시 극단과 극단의 比較의 素材를 提供하는 結果이기도 하다.

#### 7. 아기를 안아주는 行爲

어머니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子女의 社會化를 일찍 시작하는 傾向이 있음을 發見하였는데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역시 안아주고 놀아주는 率이 높다는 結果로 보아 이들 社會化가 어머니와의 觸感的接觸의 상실을 뜻하는 것은 아닌 듯하나 앞으로의 研究가 이루어져야할 分野라 생각된다.

#### 8. 아기가 귀찮을 때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反應

反應한 어머니들의 大體로 70%에 該當되는 수는 아기가 몹시 귀찮았거나 또는 때때로 귀찮을 때가 있었다는 反應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어머니의 느낌이 어떠한 態度로 表現되었으며, 어떠한 때 귀찮았고, 또한 얼마나 오래동안 이와같은 느낌을 갖었었느냐에 關한 究明은 母子間의 健全한 關係의 維持를 爲한 資料로서 重要하다고 본다.

#### 9. 아기가 병들었을 때의 어머니의 反應.

어머니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곧 病院에

찾아가는 率이 높고 教育수준이 낮을수록 약방에서 약을 사먹이는 率이 높다는 結果를 發見했다.

經濟水準도 關係되어 있으리라 짐작하나 專門醫를 찾아가는 率이 낮은 層의 어린이의 健康에 對한 關心을 엿보인다.

#### 10. 子女의 偏愛

相當數의 어머니가 特定된 子女를 偏愛하고 있다는 結果는 探索의 餘地가 큰 問題이다.

偏愛는 父母와 子女間은 勿論이러니와 sibling rivalry의 可能性, 또는 女兒나 男兒를 特別히 사랑하는 경우의 “sexual rivalry, over-protection 等等 性格의 形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父母의 行爲이므로 偏愛의 理由, 方法, 이에 對한 子女의 反應같은것이 밝혀져야 하리라 본다.

#### 11. 어머니가 눈에 띄지 않아도 울지 않는 아기.

어머니가 눈에 띄지 않아도 울지 않는 아기와 우는 아기의 分布는 大略 半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울지 않는 경우가 頻度에 있어 強勢를 보이고 있다. 이 아기들을 對象으로 해서 Erikson의 “Basic trust”의 形成過程을 觀察함도 뜻 깊은 研究가 되리라 생각한다.

#### 12. 아기의 出處에 대한 어린이의 關心.

아기의 出處에 關한 어린이의 關心은 適切한 充足이 없거나 애매한 答辯으로 回避하는 경우에 父母에 對한 不信이나 性的인 것에 對한 異常關心으로 이끌어지기 쉽다.

<수표 22>에서 볼수있는 反應들은 約 40%에 해당되는 어머니들이 어린이의 이 方面의 關心에 대해서 回避의 反應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關心의 延長이라고도 할 수 있는 性的分野에 關한 關心에 對한 어린이의 質問도 勿論 父母에 依해서 이와같이 回避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 分野가 갖는 意義에 비추어 어머니의 啓蒙이 必要하다고 본다.

### 13. 작난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되듯이 玩具의 粗雜性으로 因한 어린이의 被害도 問題이기는 하나 教育玩具의 缺乏乃至 價格의 高價같은 것은 어린이의 健全한 發達을 爲해 不正食品 못지 않는 關心이 주어져야 하리라 본다.

### 14. 꾸깃음을 받는 子女의 行動

子女의 어떠한 行動을 父母가 꾸깃느냐는 問題는 子女의 教育에 對한 父母의 態度를 反映해 주기도 한다.

<수표 29>에서 興味있는 것은 反應의 頻度에 있어 大卒의 교육수준을 가진 어머니는 뚜렷하게 “거짓말 할때” 제일 꾸깃고, 中高卒의 어머니는 “거짓말 할때”와 “말을 안듣거나 버릇없고 심술 부릴때” 가장 꾸깃고, 國卒의 教育수준의 어머니는 “싸움, 다툼”과 역시 말을 안듣거나 버릇없고 심술 부릴때” 제일 꾸깃는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라 分類된 三個兒童集團의 生態에 關한 研究와, 같은 三個集團의 父母의 子女教育에 對한 態度에 關한 研究 및 이것이 兒童의 人性發達에 미치는 研究는 뜻이 있는 것이라 보겠다.

### 15. 칭찬 받는 어린이의 行動

<수표 32>에 依하면 어머니의 教育수준에 따라 칭찬받는 子女의 行動이 다르다. 最頻值로 보아 大卒은 “공부 잘 할때”와 “혼자서 착한 일 했을때” 칭찬함에 反하여 中高卒 및 國卒의 어머니는 “공부 잘 할때”와 “말 잘 들을 때” 칭찬한다는 結果이다.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심부름 잘할때” 라는 反應이 國卒이나 中高卒의 어머니에게서 많다는 結果가 이들이 子女에게 順從을 強要하는 態度를 아직도 갖고있음을 뜻하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考察이 밝히리라 본다.

### 16. 子女와의 約束을 지키는 態度

어머니가 子女와의 約束을 지키는 行爲는 社會라는것의 性格에 비추어 그 意義가 甚大하다 하겠다.

時間의 嚴守, 遵法의 精神, 相互의 信賴 같은 社會的 行動이 家庭에 있어서의 訓練과 教育의 延長이라고 看做하는 立場을 取할때 1,132 名의 反應한 어머니 中에서 “子女와의 約束을 꼭 지킨다”라는 反應이 23.0%에 該當되는 260 名에 不過하다는 結果는 父母에 對한 不信, 또는 나아가서 既成世代에 對한 不對信과 聯關된 可能性을 갖었을뿐 아니라 어린이 自身의 責任感의 缺如와도 關係될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있다.

### 17. 好奇心의 充足

어린이의 自然的인 好奇心을 詳細한 說明으로 忍耐를 가지고 充足시켜 주거나 또는 오히려 好奇心을 일으켜 주면서까지 어린이의 興味나 關心을 넓혀주는 外國의 어머니들에 比하여 <수표 34>의 結果는 韓國의 어머니의 自覺과 反省을 要求한다고 하겠다.

### 18. 어린이가 꼭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버릇.

“덕의 어린이가 꼭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버릇은?”이라는 設問에 對해서 1,132 名의 應答者中의 458 名만이 反應하였다는 結果는 訓育에 對한 無關心이나 子女教育에 對한 計劃의 缺如를 말하는 것이라 解釋될 수 있겠다.

### 19. 고쳐져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버릇.

<수표 37>에 依하면 頻度에 있어 “나쁜 말, 욕”등이 고쳐져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어린이의 버릇에서 首位를 찾아 한다.

비슷한 傾向이 國民校 五六年生과 中學校一, 二, 三學年生의 父母를 對象으로한 筆者의 調査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나쁜 말과 욕”은 相當히 普及되고 있고 이에 對한 父母의 關心도 적지 않은것으로 생각된다. 言語라는것이 意思交換의 手段에 머물지 않고 行動의 統制乃至調整의 가장 重要한 媒介體의 役割을 한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 어린이 世界에서의 言語의 淨化는 時急을 要하는 課題라 본다.

## 20. 自立性의 育成

어린이의 獨自的인 成就, 探索, 熟達等은 後의 行動에게 正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自立이나 成就를 鼓舞하는 어머니를 가진 어린이는 成就動機가 強하며 이러한 어머니를 갖지 않은 어린이 보다 學校의 成績이 좋다는 事實이 밝혀져 있다.

1,132 名의 反應한 어머니中에서 73%만이 어린이의 自立정신을 키워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는 結果나 또한 이러한 생각의 實現으로 獨自的인 探索이나 “혼자 해 보기”나 “혼자 뒤져 보기”가 아닌 “自己방의 이불을 혼자 개개”하는 種의 方法을 쓰고있음은 自立精神을 키우는데 있어서의 어머니의 積極的인 參與가 要求되는 結果라 하겠다.

## V. 結 論

어머니의 育兒態度를 알아보기 爲하여 44 個의 簡略한 問項으로 構成된 質問紙를 作

成하여 韓國의 四個都市에 있는 1,132 名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거나 키운일이 있는 어머니에게 直接 反應하도록 하였다.

資料의 수집과 大體的인 育兒行動의 輪郭把握을 爲한 記述的調查인 까닭에 嚴格한 統制나 實驗의 性格은 缺如되어 있으나 蒐集된 資料는 講義나 著書等に 있어 外國의 文獻에서 引用할 수 밖에 없었던 育兒에 關한 資料들을 우리의 것으로 代替하게끔 하는 실마리는 提供하리라 본다.

口唇, 肛門, 性慾, 依存, 攻擊의 行動體制에서 性에 關한 部分은 豫備面接의 結果, 어머니의 反應이 活撥하지 못하여 除外되었다.

大體로 보아 結果는 韓國의 어머니가 (國民學校卒業以上の 教育수준에 있는) 子女의 基本的인 欲求是 充實하게 充足시켜주나 한 次元을 높여서 育兒行動이 어린이의 人性發達에 미치는 影響까지는 視野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成就動機의 昂揚, 約束의 嚴守, 自立性의 育성과 같은 健全한 社會化에 必要한 因子들이 等閑視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Résumé

### A Study on the ecology of child rearing by the Korean mothers.

1,132 Korean mothers in urban areas with educational level higher than elementary school were asked to make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composed of 44 items.

The items selected for the purpose were those which are known to be of significance in influencing personality development.

Thus, they were related to child rearing attitude of mothers to such behavior system of child as oral, anal, sexual, dependence, aggression.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were checked, based on the concept of "basic trust" in the sense of E.H. Erikson.

Asked also were such factors as preference of mothers for sons or daughters, reward, punishment, ways of satisfying curiosity of children, attitude of mothers in keeping promises with their children, disciplining, training, etc.

A brief résumé of the result is as the following: About 75% of the responded prefer sons

to daughters, whereas only about 5% of them prefer the later to the former, suggesting the possibility that daughters might be reared less attentively.

Only 27.7% of the college-graduated mothers responded to have read frequently the books about child rearing.

41.5% of the total responded sai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their parents in rearing their children.

Duration of breast-feeding ranges from 6 months to over three years, showing that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education have Mo in 3 years, those with high school in 16~18 months, and those with college education in 10~12 months.

27.8 % of the 1,132 mothers responded to have used bitter or hot things as the method of weaning, suggesting that weaning might have been abrupt and radical.

About 30% of the total responded took no measures to their children when these soiled even after grown to be without diapers, showing that toilet training is mild.

Socialization of children starts earlier when mothers' educational level is higher.

About 70% of the total responded said that they feel children to be burdensome sometimes.

Mother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frequent hospitals when children are sick, while those with lower have tendency to seek drug stores.

Considerable number of mothers responded to prefer certain members of their children.

52.8% of the total responded said that their children show no emotional uneasiness when mothers are out of sight.

About 60% of the total responded explain their children that they were delivered by the mother, when they were asked about the matter by children.

Toys most frequently to be found at home are bicycle, automobile, boat, airplane, gun and sword for boys, and doll and cooking utensils for girls.

The most enthusiastically praised behaviors of children are when these make good school achievements and when these are obedient.

23.0% of the total responded said that they keep their promises to children without fail.

About 60% of the total responded are relatively sincere and correct in satisfying the curiosities of their children.

To the item "please state what you think your children must learn," the most frequent responses were manners, independence, sense of responsibility, orderly life, cleanness.

(The data collected are more than in this résumé, since many items required free responses to the subjects. For those interested in this study, details in English will be forwarded after request)

〈附錄〉

질문지

나이 \_\_\_\_\_세 교육정도 (1. 국졸 2. 중고졸 3. 대졸)  
 가정의 평균 수입 \_\_\_\_\_만원정도, 직업 \_\_\_\_\_,  
 자녀수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자녀의 나이,  
 (아들 \_\_\_\_\_, 딸 \_\_\_\_\_,

이 질문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계  
 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답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으니 어린이들을 어떻게 길렀고  
 또는 기르고 계시는가 답하면 됩니다. 답하시는  
 방법은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위에  
 간단히 생각하신 것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심리학과

1. 애를 낳으셨을 때 아들, 딸 중 어느 쪽을 더 원  
 하셨습니까?

1. 아들 2. 딸 3. 아무래도 좋았다.

2. 아기를 낳으셨을 때 원하는 성과 반대되었을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1. 매우 섭섭했다. 2. 조금 섭섭했다.  
 3. 아무렇지도 않았다. 4. 팔자로 알았다.

3. 육아법에 관한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까?

1. 읽지 않았다. 2. 때때로 읽었다.  
 3. 자주 읽었다.

4. 어린애를 키울 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  
 니까?

1. 어른들 2. 친구나 어른들  
 3. 나 혼자 알아서 키웠다.

5. 아기가 몇살때까지 젖(모유)을 주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까지

6. 아기가 보챌때마다 젖을 주었습니까?

1. 보챌때 아무때나 주었다.  
 2. 시간에 따라 주었다.

7. 시간을 엄수해서 젖을 주었다면 하루에 몇번씩  
 주었습니까?

\_\_\_\_\_번쯤

8. 젖을 뗄때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1. 땀거나 쓴 것을 발랐다.  
 2. 우유로 바꾸었다.  
 3. 죽으로 바꾸었다.

4. 밥을 먹였다.

9. 아기의 귀저귀는 어떻게 갈아 주었습니까?

1. 세번 오줌을 싸면 갈아주었다.  
 2. 한번 싸면 갈아주었다.  
 3. 두번 싸면 갈아주었다.

10. 기저귀는 아기가 몇살때까지 착용하였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때까지

11. 기저귀를 뗀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1. 때려주었다. 2. 꾸짖었다.  
 3. 아무렇게도 하지않았다.

12. 당신은 언제 아기를 안아주었습니까?

1. 젖을 먹일때만 안아주었다.  
 2. 젖먹이고, 재울 때도 안아주었다.  
 3. 그외에도 안고 놀아주었다.

13. 태의 어린이들은 주로 누구의 손에서 많이 자  
 랐습니까?

1. 어른들손에서 2. 부모손에서  
 3. 식모손에서

14. 아기가 귀찮을 때가 있었습니까?

1. 때때로 있었다. 2. 전혀 없었다.  
 3. 몹시 귀찮았을때가 있다.

15. 목욕은 평균 몇일에 한번 시켰습니까?

\_\_\_\_\_일에 한번쯤

16. 자는 애기 얼굴에 파리가 앉으면 어떻게 했습  
 니까?

1. 쫓아주었다.  
 2. 수건같은 것으로 가려주었다.  
 3. 내버려두었다.

17. 아기가 병에 걸린것 같으면

1. 곧 병원에 갔다.  
 2. 약방에 가서 약을 사먹었다.  
 3. 경과를 보아 행동했다.  
 4.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었다.

18. 당신은 자녀중 더 귀여워하는 어린이가 있었  
 을습니까?

1. 아들을 더 귀여워했다.  
 2. 딸을 더 귀여워했다.  
 3. 없었다.

있었다면 몇째입니까?

\_\_\_\_\_째 아들 \_\_\_\_\_째 딸

19. 밖알어른 께서도 더 귀여워하는 어린애가 있었

옵니까? 있다면 몇째입니까?

\_\_\_\_\_ 아들 \_\_\_\_\_ 딸

20. 태의 자녀는 부모님중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 아들 1. 아버지 2. 어머니 3. 부모의 사람  
 딸 1. 아버지 2. 어머니 3. 부모의 사람

21. 태의 자녀는 성격이나 행동이 누구를 더 많이 닮았습니까?

- 아들 1. 아버지 2. 어머니 3. 다른사람  
 딸 1. 아버지 2. 어머니 3. 다른사람

22. 태의 아기는 엄마가 눈에 띄지 않으면 옵니까

1. 운다. 2. 안운다.

23. 변의 자녀들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를 표 시합니까?

1. 운다. 2. 심술이나 투정을한다  
 3. 말을 하지않고 혼자있다.  
 4. 물건이나 장난감 같은것을 마구던진다.

24. 어린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잘 타일렀다. 2. 야단을 쳤다.  
 3.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5. 태의 어린이는 무엇을 제일 무서워 하였을 니까?

1. \_\_\_\_\_ 2. \_\_\_\_\_

26. 태의 어린이는 무서우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니까?

27. 어린이들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할때 어떤 말 을 자주 사용했습니까? (예: 호랑이가 온다)

28. “엄마 애기는 어디서 생겼어”하고 물을 때 무 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29. 태의 어린이는 동생을 보았을 경우 어떻게 태 도, 혹은 행동의 변화를 보였습니까?

30. 태의 어린이 들은 주로 어떤 놀이를 많이 합 니까?

남자애의 경우

여자애의 경우

31. 태의 어린이의 작난감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남자애의 경우 1. \_\_\_\_\_ 2. \_\_\_\_\_ 3. \_\_\_\_\_

여자애의 경우 1. \_\_\_\_\_ 2. \_\_\_\_\_ 3. \_\_\_\_\_

32. 어린이들 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갖습니 까?

- 아버지 1. 갖는다 2. 못갖는다  
 어머니 1. 갖는다 2. 못갖는다

33. 어린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루 평균 몇시간 정도입니까?

아버지 \_\_\_\_\_ 시간 \_\_\_\_\_ 분정도

어머니 \_\_\_\_\_ 시간 \_\_\_\_\_ 분정도

34. 자녀가 동무들 하고 놀다 싸우고 울며 들어왔 을 때

1. 나무랜다. 2. 잘 타이른다.  
 3. 내버려둔다.  
 4. 그런애와 놀지 못하게 한다.  
 5. 때린애나 그 부모를 향의 한다.

35. 어린이가 잘못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때린다. 2. 욕을 해준다.  
 3. 타이른다. 4. 얼려준다.  
 5. 아무말 하지 않는다.

36. 자녀가 어떤 일을 했을때 제일 꾸짖습니까.

37. 어린이가 착한 일을 했을때 어떻게 합니까?

1. 말로 칭찬한다. 2. 좋아하는것을 사준다  
 3.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4. 바라는 것을 사준다고 약속한다.

38. 자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제일 칭찬합니까?

39. 자녀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편입니까?

1. 꼭 지키다 2. 지키는 편이 많다.  
 3. 지킬때도 있고 못지킬때도 있다.  
 4. 못지키다.

40. 큰 사탕은 내일 먹어야만 하고 작은 사탕은 지금 먹어도 좋은 경우에 태의 자녀는 어느쪽을 택합니까?

1. 큰 사탕 2. 작은사탕

41. 태의 자녀가 “엄마, 왜 소는 다리가 넷이야?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 넷이니까 넷이지 2. 넘어지지 말라고  
 3. 동물은 다리가 넷이야.  
 4.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5. 엄마도 모르겠어. 6. 지키

42. 태의 어린이가 꼭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버릇은?

\_\_\_\_\_

43. 태의 어린이에게서 고쳐 주어야 하겠다고 생  
각하시는 버릇은?

\_\_\_\_\_

44. 태의 어린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주어야 하겠  
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있으시다면 독립심을 키우게 하려고 사용한 방  
법을 적어주세요.

1.

2.

3.

감사합니다. 귀태에 **만복** 있으시기를 기원합  
니다.